

우리는 로열패밀리: 왕가의 제사장 자손

성경말씀: 벘전2:9

사람은 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7-80년을 산다. 이 짧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과제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어떤 신분으로 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딸로 서든지, 마귀의 아들딸로서 죄인으로 서든지 둘 중 하나이다.

대통령, 지위고하, 남녀노소, 상관없다. 두 신분 중 하나로 설 것이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되기로 작정하였는가?

신분을 바꾸기 위해

골1:12-14, 원래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

신분 변화를 위해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대신 죽으셨다.

그분의 피를 통해가 있는 성경이 바른 성경이다.

부모에게서 아이들이 물려받는 것, 신분뿐만 아니라 유전자(성품), 행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그분의 행실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벘후1:4).

오늘은 < >, 우리의 신분,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난주 설교 <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 많이 시청,

기복신앙, 돈 벌려고 교회에 나온다(딤후6:5).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에 합당한 삶 요즘 우리 교회에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온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1. 신분의 변화(구원), 2. 변화에 걸맞은 삶이 있어야 한다(성화).

이것이 있어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인생 요약, AD 65년경, 네로가 황제로 있던 당시, 극도의 핍박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을 그 시대로 데리고 가서 읽어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이다. 노년의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벘전1:1-2

두루 흠어진 나그네들 stranger, 말 그대로 세상과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거처가 아니라.

벘전2:11, 나그네와 순례자, 순례자는 pilgrim, 정처 없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다니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영원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텐트를 치고 사는 유목민같이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

왜 베드로는 자기를 포함해서 당시 로마 제국에 흠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썼을까?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장도 되어 재물도 얻고 명예도 얻고,,, 가능하다.

특히 종교개혁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근면함으로 인해 자본주의 체제를 만들고 재산과 소유를 늘리는 일을 해 왔다. 가장 잘사는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이다. 가장 못 사는 나라들: 이슬람, 공산주의, 사회주의 천주교, 불교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그리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신분의 변화가 생기고 그 결과 신분에 합당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골3:23)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긴다.

(엡 6:7)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베드로 당시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를 누릴 자유나 기회가 없었다.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거의 신으로 여겨지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탄압하는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모든 곳이 다 우상으로 오염되어 그리스도인들이 질식할 정도로 어려운 사회

사자의 밥이 되어 순교하던 시대

바로 이런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현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알 수 있겠는가?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믿음을 지키며 살려나 직업을 갖기도 어렵고, 이전처럼 주인을 속이며 일을 할 수도 없으니 이득도
줄고,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고, 배척하고...참으로 답답한 일이 성도들에게 생겼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 신분의 핵심이 무엇인가?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사실 너희는 2:9에 있는 대로...“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

1. 선정된 세대, generation은 낳는 것을 말한다. 즉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정이 되어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다. 마1:1,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정하시고 우리를 낳으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세대가 되게 한 자들이다. 세대는 형제자매, 엄밀히 말해 예수님이 형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요1:12-13). 빌2:15

요일3:1-2

물론 그분은 독생자, 우리는 양자로 태어난 아들들

2. 왕가의 제사장

우리는 집안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로열패밀리라고 한다. 이재용 집안, 북한의 김일성 집안
이번에 서거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후손들은 다 로열패밀리이다.

왕가의 제사장, 여기의 왕가가 바로 로열이다. 왕가에 속한, 즉 우리는 다 로열패밀리이다.

왕가에 속하면 왕의 모든 소유가 우리 것이 된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다.

제사장, 구약시대, 평민들과 제사장이 있었다. 평민들은 감히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못했다.

제사장들이 중보 역할, 레16장, 오직 대제사장만 속죄일(7월 10일)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공훈의 자리에 피를 뿌렸다. 죽을까 봐 향을 진하게 피우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오시면서 구약의 이런 모든 것을 왕성하셔서 철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특권을 주셨다(히4:16). 그러므로
우리가 공훈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벧전2:5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가의 자녀요, 로열패밀리, 하나님 아버지의 왕좌 앞에 직접 나가 사정을
아뢰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3. 거룩한 민족

거룩하다는 말은 특별한 용도로 분리가 되었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신 분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구분이 되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민족, 국민이
되었다(고후5:18-19).

4. 특별 소유 백성 peculiar people

독특하다는 말이다. 누구나 좋아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그래서 자가 소유로 삼고 싶어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특별 소유 백성으로 삼아 주셨
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다.

5. 벧전2:9에서 지금 베드로는 고통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분이 이러하니 이것을 잊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다.

21세기의 우리 역시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찌지 않는 하늘의 상속 유업이 우리 것이다(벧전1:3-7).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1:13)

옛 생활을 청산해야 한다(1:14-16)

왜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므로(17).

하나님은 성도들도 심판하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레10)

6. 이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2:1-2).

주님의 은혜를 알면 그리해라(3).

우리 교회, 스스로 설 수 있는 성도, 말씀을 달콤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주장하는 성경 신자들의 모임

7. 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가? 왜 거룩한 일을 해야 하는가?

답은 2:9 후반부에 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전하대로 번역된 말은 show forth, 앞으로 나가서 보여 준다, 전시한다.

즉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보여 주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일(행2:47). 아침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1.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

학교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개으르면 평생 후회한다. AI 시대, 직업 찾기 어렵다.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아야 한다(살후3:10).

프로테스탄트들의 직장 윤리, 근무 태도

나는 지난 30년 동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일을 빼고는 매일 학교에 간다. 2북호관의 수호신

2. 비상식적인 일을 하면 안 된다.

오순절 은사운동 신비주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철야기도 산기도 등 가정생활 소홀히 하는 것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

밤새 중얼중얼, 주여 3창, 고전14:23,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신사도 운동이니 뭐니 해서 뒤로 쓰러뜨리는 일

교회 다니기 싫다는 사람들의 다수: 교회는 왜 상식이 통하지 않는가?

목사가 자기 교회 처녀 자매 강제 추행, 금고 선고받음

인천 어떤 목사는 의사를 그만두고 목사, 매일 자기 자랑, 구원을 잃는다고 한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내내 탄소리,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3. 언행이 왕가의 후손 같아야 한다.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영연방 사무총장의 모습을 한번 보자. (*)

고상하다. 우아하다. 왕가의 기품이 있다.

바로 이런 것이 로열패밀리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베드로의 권고(3:1-4),

그래서 옷을 바르게 입고 다녀야 한다.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얌전하게, 밖에 나가서는 세상과 동일하게 하는 것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일단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 예의가 발라야 한다. 인사, 대접을 잘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규정이 아니라 성경의 규정이다.

어떤 사람의 글...소개

특히 자매님들은 남성을 유혹하는 옷, 장식 등을 하면 안 된다.

짤 바지, 짝 끼는 청바지, 엉덩이 걸친 청바지, 핫팬티, 미니스커트, 찢어진 옷, 등산복, 예배 시간에 운동모자, 하나님께 경의를 표해야 한다. 죄를 짓는 것이다.

삼상2:30,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경홀히 여기리라. 나는 공학, 고쳐 쓰는 것, 성형, 네일, 파마, 염색 적당하게 하기 바란다.

다시 강조: 교회에서와 밖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나님이 위선자를 미워하시고 아이들도 부모의 위선을 배우고 미워한다. 교회 와서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라 3:2-4를 늘 명심해야 한다.

4. 반드시 애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현시대 가장 큰 선한 행위

하나님이 주신 자유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유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지금은 로마 시대가 아니다. 투표하는 시대

동성애, 낙태, 공산주의, 사회주의 지향하는 사람을 뽑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해야할 큰 죄이다.

좌익 목사, 성도들의 모임에서 과감하게 탈출해서 나와야 한다.

나라가 이 모양인데도 한마디 말을 못하는 목사들, “나는 좌익은 아니지만 교회에서는 정치 발언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좌익이요 좌익을 돕는 자들이며 짓지 못하는 개들이다.

사56:10,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 하는 개들이므로 짓을 수 없도다. 이러면 나라 망한다. 믿음 생활 못한다.

이런 목사, 성도,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마귀를 찬양하는 것이다.

결 론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의해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다. 로열패밀리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왕가에 속한 제사장 자손이 된다.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지만 로열패밀리답게 행동해야 한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